

9월 25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

□ 미국 기후 현황(9/16~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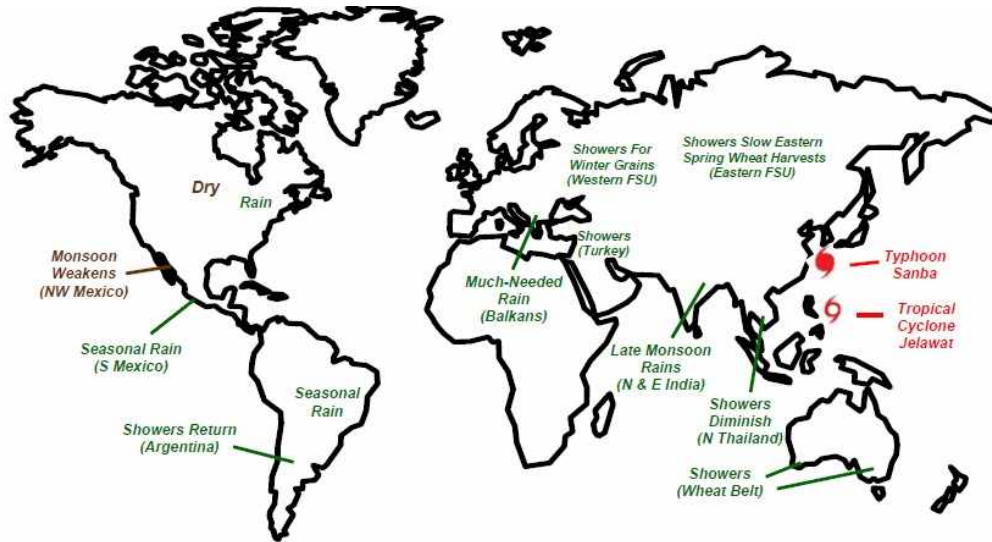
남부와 동부에 호우가 내린 반면 서부는 기후가 건조하다. 애팔라치아 산맥 일부지역에서 주간 총 강수량은 4인치 이상이였다. 비로 인해 남동부의 여름작물 수확작업이 중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졌다. 강수 후 서늘한 기후가 뒤를 이어 중서부지역의 주간 온도가 평년보다 화씨 5~10도 더 낮았다. 9월 22일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의 동쪽에서 금년 최초로 광범위한 냉해가 발생했다. 23일엔 중서부의 위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아이오와에 이르는 지역에 냉해가 발생했다. 옥수수과 대두의 성숙이 급속히 완료되고 있으며, 이미 가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냉해의 피해정도는 작다. 대평원지역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겨울밀 파종이 지연되고 있다. 북서부의 주산지에서는 가뭄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겨울밀 파종이 진행되고 있다.

□ 미국 작황 하이라이트(9/17~23)

※ 가을이 도래하고 한랭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주중 대평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서늘해졌다. 미시시피강 상각주지역에서부터 뉴잉글랜드까지 한랭전선을 동반한 뇌우가 평균 이상의 강우를 내렸다. 콘벨트 동부와 오대호 주변지역(Great Lakes region: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간, 미네소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화씨 6도 이상 낮다. 반면에 미국 서부는 고온건조하여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화씨 6도 이상 높아 여름작물의 성숙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소립곡류의 파종 및 발아속도가 느려졌다.

- 옥수수: 주말까지 88%가 성숙기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0%p 빠르고 5년 평균 대비 31%p 빠른 속도이다. 주산지의 기후가 서늘하고 건조하여 성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충분하다. 9월 23일까지 전국 수확율을 39%로 전년대비 27%p 빠르고 5년 평균 대비 26%p 빠른 속도이다. 아이오와 주의 수확작업은 평년보다 3주나 빨리 진행되었으며 수확된 옥수수의 수분함량은 18%라고 보고되었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24%로 전주와 동일하나 전년 동기 대비 28%p 낮은 수준이다.
- 콩(대두): 9월 23일 기준 73%가 잎떨어짐시기에 진입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2%p 빠르고 5년 평균 대비 14%p 빠른 속도이다. 인디애나 주 일부에서 헵(꼬투리)이 성숙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콩줄기는 초록색을 띠고 있어 생산농가들은 수확속도를 늦추고 있다. 주말까지 수확률은 22%로 전년대비 18%p 빠르고 5년 평균 대비 14%p 빠르다. 아이오와 주의 수확작업은 평년보다 한 주 빨리 진행되고 있다. 좋음/아주 좋음 등급은 35%로 전주대비 2%p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8%p 낮은 수준이다.
- 겨울밀: 주말까지 2013년 겨울밀 파종율은 25%로 전년대비 3%p 빠르지만 5년 평균 대비 2%p 느린 수준이다. 텍사스 주 일부지역에서 토양수분이 증가하여 주중 파종율이 높아졌다. 일부 재배지역에서는 이른 파종을 한 밀이 발아를 시작했다.

□ 세계 기후 하이라이트(9/16~9/22)



- 유럽: 발칸반도에 기다리던 비가 내렸고 겨울밀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공급되었다.
- 구소련(서부): 소나기가 내려 겨울밀 파종 및 입모에 필요한 토양수분이 증가되었다.
- 구소련(동부): 동쪽에 소나기가 내려 봄밀 수확작업이 둔화되었으나 서쪽과 남쪽의 기후는 건조하여 작물의 성숙 및 수확이 빠르게 진행했다.
- 동아시아: 태풍 산바(Sanba)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호우가 내렸고, 한반도 남쪽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 호주: 지난주 건조했으나 금주 밀벨트에 산발적 소나기가 내렸고 생식성장기의 겨울밀 및 유지작물에게 필요한 표토층 수분이 증가했다.
- 아르헨티나: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려 겨울작물 생장발달에 적정수준 내지 과도한 수분이 공급되었다.
- 브라질: 중부의 대두 주산지에 계절성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 캐나다(평원): 봄작물의 수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 캐나다(남동부): 비가 내려 겨울밀 발아 및 입모에 필요한 수분이 추가로 공급되었다.

□ 세계 기후 현황

- 유럽: 중부 및 남부에는 비가 내렸으나 북부와 서부의 기후는 건조하다. 한랭전선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여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폴란드와 발트해 3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강수량 5~25mm의 소나기와 뇌우가 내렸고 겨울밀과 유채에게 공급되는 토양수분이

증가했다. 한랭전선이 남부에 정체함에 따라 태풍이 발달하게 되어 이탈리아와 발칸반도 전역에 중도 내지 과도한 강수량(10~50mm)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럽 남동부의 가뭄이 해갈되었고 겨울밀 파종에 필요했던 수분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토양수분을 완전히 보충하고 사상 최고로 건조했던 여름의 영향이 회복되려면 더 많은 강수량이 필요하다. 한편 영국 남동부, 프랑스와 독일 북부의 기후가 건조해져(강수량 5mm 미만) 여름작물의 수확 및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은 건조하여 겨울밀과 보리 파종을 위해 비가 필요하다. 유럽대륙의 평균기온은 평년에서 섭씨 1~2도 내외이나 스페인은 열기(30~35°C)로 인해 토양수분이 증발하고 있다.

- 구소련(서부): 한랭전선을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에 강수량 5~55mm의 비가 내렸으므로 겨울작물 및 유지작물에게 토양수분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름작물의 건조, 수확작업은 방해를 받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밭작업이 잘 진행되었다. 최근 몇 주간 겨울작물 파종에 필요한 수분량이 증가했으나 고온건조한 여름동안 고갈되었던 토양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려면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한다. 지난주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겨울작물의 생장이 촉진되었으며 겨울작물의 냉해는 예상되지 않는다.
- 구소련(동부): 동쪽에 소나기가 내렸으나 서쪽과 남쪽의 기후는 건조하다.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태풍으로 인해 러시아 시베리아지역에 강수량 10~32mm의 소나기가 내려 봄밀의 건조 및 수확작업이 방해를 받았다. 그러나 강수량이 5mm 이하였던 카자흐스탄 북부와 우랄지역에서는 밀 수확작업이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와 남부에만 비가 내렸고 한반도에는 태풍 산바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다. 태풍 산바는 대한민국 및 북한 동쪽에 강수량 200mm를 초과하는 비를 내렸다. 태풍 산바의 잔재세력은 북동부로 이동하여 흑룡강 동부에 강수량 50~100mm의 비를 내렸다. 이 지역 대두는 성숙기에 진입하는 중이므로 이 같이 많은 양의 강수량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지역을 제외한 중국 북동지역은 온난하고 건조하여 대두와 옥수수의 성숙단계에 유리했다. 화북평야지역과 양쯔강 유역도 온난하고 건조하여 옥수수, 면화, 대두의 성숙단계에 유리했다. 주말에 중국 남부에 강수량 25~80mm의 비가 내려 만생종 쌀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중생종 쌀의 성숙 및 수확속도를 늦추었다.
- 호주: 서부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강수량 8~25mm의 소나기가 내려 생식성장단계의 겨울밀과 유지작물 단수를 안정화시켰다. 한편 남부는 2주 연속으로 건조기후가 지배적이거나 심층토의 수분이 생식성장기의 겨울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밀벨트의 다른 지역에서는 빅토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남부에서 산발성 소나기(강수량 5~25mm)가 내려 밀, 보리, 카놀라에게 수분을 공급했다. 밀벨트 전역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소폭(2°C까지) 높아 수분이 충분한 지역에서 작물의 성장발달을 촉진했다.
- 아르헨티나: 중부와 동부 재배지역에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렸으며 겨울밀에게 충분 내지는 국지적으로 과도한 수분을 공급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북동방향으로 코리엔테스(Corrientes)와 미시오네스(Misiones)에 이르는 지역의 총강수량은 10~50 mm이며 일부

지역은 100mm가 기록되었다. 산루이스(San Luis)와 코르도바에도 유사한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밀벨트 남부(라팜파,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서부)와 북단(Chaco 인근지역)은 건조기후가 지속되었다. 밀벨트 남부지역은 이전의 기후가 습했기 때문에 수분수준이 충분하겠지만 북단지역은 수 주간 기후가 평년보다 온난건조했기 때문에 비가 올 필요가 있다. 주간 평균기온은 북쪽에서 평년보다 2~4°C 높으며 주 초반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대 후반이었다. 남단지역은 계절적으로 서늘한 기후가 지배적이며 낮 최고기온은 섭씨 20도 대 초중반이고 야간 최저기온은 영점에 가깝다.

- 브라질: 중부 내륙지역에 산발적 소나기가 내려 여름 우기의 시작을 알렸다. 중서지역의 일부(마토그루수, 고이아스, 마토그루수두술)와 토크틴 남부에서 총 강수량이 25mm 이상 이었고 대두 파종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발아와 입모를 위해 비가 더 올 필요가 있다. 남부(상파울루에서 남쪽으로 리오그란데두술까지) 강수량은 25~100mm로 더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 이 비는 특히 건조했던 지역인 빠라냐 북부의 성숙기 이전단계 밀에게 도움이 되었다. 중부와 남부의 주간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4°C 높으며 낮 최고기온은 마토그루수에서 40°C에 달했다.
- 캐나다(평원): 건조기후로 인해 발작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마니토바와 사스캐처원 인근에 내린 산발적 소나기(누적강수량 5mm 미만)를 제외하면 재배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동쪽의 습한 지역의 경우 주간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3°C 낮아 광범위한 지역에서 양곡연도를 종료하는 동결현상(야간 최저기온 -7~-2°C)이 기록되었다. 반면에 일부 지역만 동결현상이 일어난 서부지역에서 주간평균기온은 평년보다 4°C 높았다. 캐나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성숙 및 수확속도가 높기 때문에 늦심은 봄작물 및 유지작물의 냉해 피해가 완화되었다고 한다.
- 캐나다(남동부): 국지적 호우가 가을시기의 발작업을 방해했으나, 겨울작물과 목초지의 수분수준을 증가시켰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량이 10~50mm였으나 온타리오와 퀘벡의 외진 재배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다. 겨울작물의 수분이 보충되었으나 빈번한 비로 인해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작업 등 발작업이 방해를 받았다. 기온이 너무 낮아지기 이전에 겨울밀 파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후가 건조해질 필요가 있다. 주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소폭 낮고 낮 최고기온은 섭씨 20도 대 중반, 야간 최저기온은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이다. 이 지역에서 양곡연도를 종료하는 광범위한 동결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수 주간 발아에 충분할 정도로 표토층이 온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